

2017 성탄절 가정예배 Christmas Worship

Finally, we REFLECT the light of Christ into the world. Jesus states in Matthew 5:14 that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We are called to reflect his light as his disciples. But often, when we face or experience darkness, we become passive, retract and focus on self-preservation. It is in these times, we need to be proactive and shine the light of Jesus into the darkness around us. Mother Teresa was once asked by a reporter that people in the world always ask, "Where is God?" when looking at all of the poverty and horrors that are present in Calcutta, India. As a response, Mother Teresa stated to the reporter that the world is asking the wrong question. She replied, "The world should not be asking, 'Where is God?' But rather we need to be asking, 'Where am I?'" What am I doing when I look at all of the darkness around me? We are called to reflect his light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This Christmas, I pray that you and your family would remember that there is always a reason to celebrate because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May your life reflect this truth every day of the year. Merry Christmas.

Questions:

1.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승리를 일상에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진리에 대한 '기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How is God calling you and your family to remember that His light has come and the darkness cannot overcome it? In what ways have you forgotten or found it difficult to remember?

2.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되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분의 빛이 필요한 삶의 영역을 위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In what areas do you need the light of Christ to shine in your life? Please take the time to ask God to shine his light into any specific area of your life.

3. 우리의 이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How is God calling you to reflect his light and be a living hope to those around you?

묵도/Prayer and Meditation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베들레헴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주소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God, thank you for loving us and sending your Son to this earth. Open up our hearts and help us see your Son Jesus, who was born in Bethlehem to give us life. Help us to live lives that prepare for Jesus' coming like the 5 virgins who waited patiently for their groom. In Jesus' name we pray. Amen.

찬송/Hymns 참 반가운 성도여/O Come all ye faithful (122장)
천사 찬송하기를/Hark! The herald angels sing (126장)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5) Light in the Midst of Darkness (John 1:1-5)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쁨을 주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길 위에 갓 내린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 흔히 하는 "Merry Christmas"라는 인사말을 건넬 때, 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축하하고 즐거워할 수 많은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할 때, 그들의 눈에는 빛이 아닌 어둠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News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어둠이 일상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33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

어려움, 그리고 고난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5절). 비록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둠을 이기셨으며 앞으로도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기념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기억'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각의 존재임을 야기기에 우리에게 '기억'을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3~4절에서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들이 통제 불능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함에 따라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조정'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 8:12).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기도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의 자세를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삶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빛을 세상에 '조명'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 5:1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때때로 수동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은 이 시즌에 우리는 제자로서 더욱 능동적으로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 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떤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극심한 가난과 위험을 둘러본 기자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계신지를 묻기보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연한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모두가 그분의 빛 되심과 승리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에서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hristmas is filled with many things that give us joy. Children and students are happy that they have time off of school. There is the spirit of giving and receiving Christmas gifts. Even seeing the snow fall freshly on the ground can give a warm feeling in our hearts. It is ultimately a joyous time because we celebrate the birth of our Lord and Savior. However, this season can also be difficult and burdensome. When offering the common greeting "Merry Christmas", I have heard the response, "What is so 'merry' about Christmas?" Or in other words, "What is there to celebrate?" When declaring that the Savior has come, people have responded by asking, "Where is the Savior and his light? I seem to only see darkness." Today is Christmas day. Is there a reason to celebrate?

Darkness is a reality we must face. Simply looking at the news, we can feel darkness around us. For some of us, the darkness may be very evident in our very lives. However, this is a reality that we must understand and acknowledge. In vs.5, John states that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We must accept that there is darkness. In John 16:33, Jesus himself says,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This is the good news. Yes, there is darkness. Yes, there is trouble and tribulation. But take heart! Jesus has overcome. John communicates it this way: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The darkness may be around us, but the true light, Jesus, has not, cannot, and will not be overcome by the darkness! Amen. This is the truth that we need to cling to every day until his final coming. This is the reason we celebrate on Christmas day.

So how do we respond? First, we need to REMEMBER. God continually gives 'remember' as a command because we so easily forget. What do we remember? We remember the very Word of God. John 1:3-4 identifies *that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in him was life*. Through his Word, we remember that even though things may seem out of control, God is always in control because he has made everything and he is the life. Everything is in his hands. This was perfectly shown on the cross. As we remember, we have the ability to persevere.

Second, we REALIGN our lives with Christ. Jesus proclaims in John 8:12: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ot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esus makes clear that whoever follows him will not walk in darkness. Following Jesus, is realigning our lives with him. This is done as we surrender our lives to the light of life.

We surrender as we position ourselves in the posture of prayer. In prayer, we surrender to the one who is in charge. In this posture of surrender, we are asking Jesus to shine his light in our lives especially into the darkness.